

2024년 강원대학교 인문학 영화제 개최 안내 「첫번째 장: 온기」

2024. 10.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 인문도시지원사업단

1

행사 내용

College of Humanities

1.1. 행사 개요

- 행사명: 제1회 인문학영화제 「첫번째장:온기」
- 행사기간: 2024.10.30.(수) ~ 10.31.(목)
- 행사장소: 인문대 잔디광장, 인문2호관 108, 208호, 210호 강의실
- 공동주최: 인문대학, 강원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
- 공동주관: 인문대학, 제43대 인문대학 학생회 ‘너울’
- 상영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외 18편
- 초청인사: 전 CBS 아나운서 신지혜, 영화감독 장철수

1.2. 초청 인사



신지혜

- 전 CBS 아나운서
- 진행 CBS FM 「신지혜의 영화음악」 (1998-2023)
- 공연 L Concert 헬리우드 온 에어 (2019)
- 공연 신지혜의 시네마 뮤직 (2024)
- 수상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대상 (2006)
- 수상 제33회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 부문 올해의 방송인 (2006)
- 저서 「친근한 것의 반란」 (블루핀커뮤니케이션, 2023)
- 저서 「갈리아리아야기」 (블루핀커뮤니케이션, 2023)
- 저서 「도시산책자의 드로잉-프롬 유럽」 (블루핀커뮤니케이션, 2024)



장철수

- 영화감독
- 데뷔 2010년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 수상 2011년 제33회 황금촬영상 시상식 작품상
- 수상 2011년 제18회 제라르메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최우수상
- 수상 2010년 제13회 디렉터스 컷 시상식 올해의 신인감독상
- 수상 2010년 제8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신인감독상
- 작품 정적(2023)
- 작품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2022.2.)
- 작품 백록에서 백두까지(2019)
- 작품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6)
- 작품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2010.9) 그 외 다수

1.3. 일정

구분 Time	가을(晩秋) 인문대 잔디광장	여운(餘韻) 인2-108호	운율(韻律) 인2-208호	강원(江原) 인2-210호
DAY 1				
17:00	(행사전) 봄내인문학 영상 상영 OPENING CEREMONY - 사회자: 학생회장 · 개회 선언(17:30) · 총장 축사(17:35) · 인문대학장 인사말(17:40) · 인문도시지원사업단장 인사말 (17:45)	17:30~22:03 상영 · 클래식(2003) -132분/17:30~19:42 · 서울의 봄(2023) -141분/19:42~22:03 ※후보 · 내머리속의 자우개(2004) -117분	17:30~21:54 상영 · 너의 이름은(2021) -106분/17:30~19:16 · 레미제라블(2012) -158분/19:16~21:54 ※후보 · 싱스트리트(2016) -106분	09:00~20:45 상영 · 웰컴투동막골(2005) -133분/09:00~11:13 · 고지전(2011) -133분/11:13~13:26 · 라디오스타(2006) -115분/13:26~15:21 · 파로호(2022) -100분/15:21~17:01 · 동주(2016) -110분/17:01~18:51 · 동감(2022) -114분/18:51~20:45
18:00	· 하울의 움직이는 성(2004) -119분/18:00~20:00			
19:00				
20:00	· 소년 시절의 너(2020) -135분/20:00~22:15			
21:00				
22:00	폐회 및 경품 추첨			
DAY 2				
17:00	(행사전) 봄내인문학 영상 상영 Cine & Talk · 신지혜 전 아나운서의 영화이야기(17:00~17:20) · 영화감독 장철수(17:25)	17:30~21:41 상영 · 기생충(2019) -131분/17:30~19:41 · 영웅(2022) -120분/19:41~21:41 ※후보 · 신과함께-죄와벌(2017) -139분	17:30~21:22 상영 · 이터널선샤인(2005) -107분/17:30~19:17 · 빅피쉬(2004) -125분/19:17~21:22 ※후보 · 먼 훗날 우리(2018) -120분	09:00~20:01 상영 · 웰컴투동막골(2005) -133분/09:00~11:13 · 고지전(2011) -133분/11:13~13:26 · 라디오스타(2006) -115분/13:26~15:21 · 파로호(2022) -100분/15:21~17:01 · 동주(2016) -110분/17:01~18:51 · 나는보리(2020) -110분/18:51~20:01
18:00	·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123분/18:00~20:03			
19:00				
20:00	· 말할 수 없는 비밀(2008) -101분/20:03~21:42			
21:00				
22:00	폐회 및 경품 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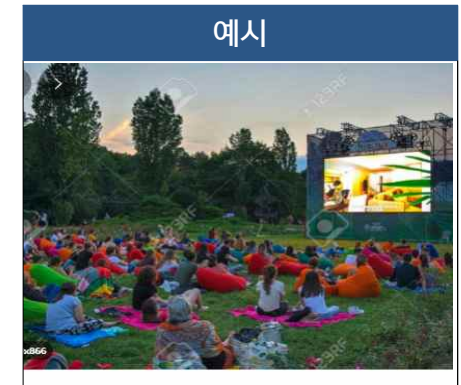
※ 인문 2호관 108·208·210호 강의실에서는 영화 사이 간격 없이 상영하며,
영화 상영 목록 및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2

세부계획

College of Humanities

2.1. Stage 가을 (晩秋)



- ☐ 장 소: 인문대 잔디광장
- ☐ 계 획: 메인 무대 및 추천 영화 상영
- ☐ 기타사항: 영화 상영시간에만 해당 장소에서 음료 이용 가능
- ☐ 준비사항: 날씨 등을 감안하여 담요 대여

2.2. Sub Stage

Stage 여운 (餘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운이 남는 감동적인 작품의 상영관 ✓ 장소: 인문2호관 108호 ✓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차: 17:30~22:00 상영(2편 상영) - 2일차: 17:30~22:00 상영(2편 상영)
Stage 운율 (韻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음악이 아름다운 작품의 상영관 ✓ 장소: 인문2호관 208호 ✓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차: 17:30~22:00 상영(2편 상영) - 2일차: 17:30~22:00 상영(2편 상영)
Stage 강원 (江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을 주제로 한 작품의 상영관 ✓ 장소: 인문2호관 210호 ✓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차: 09:00~21:00 상영(6편 상영) - 2일차: 09:00~21:00 상영(6편 상영)

2.3. 부대 시설별 세부 계획

운영시간	운영내용	
10.30.(수)~10.31.(목) 16:00~22:00	<input type="checkbox"/> 부스이름: 가을극장 매표소 <input type="checkbox"/> 입장 등록(인문대 재학생 인증), 리플렛 및 티켓 배부, 응모함 진행 <input type="checkbox"/> 담요 대여	
10.31.(목) 16:00~20:00	<input type="checkbox"/> 부스이름: 나만의 가을行 티켓 <input type="checkbox"/> 티켓꾸미기 존 <input type="checkbox"/>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10.30.(수) 16:00 ~ 10.31.(목)15:00	<input type="checkbox"/> 부스이름: 감독에게 물어봐 <input type="checkbox"/> 초대손님인 장철수 감독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 작성 <input type="checkbox"/> 네이버폼을 이용한 접수 병행	
10.30.(수)~10.31.(목) 16:00~22:00	<input type="checkbox"/> 포토월에서 자유롭게 사진 촬영	
10.30.(수)~10.31.(목) 17:00~21:00	<input type="checkbox"/> 푸드 트럭 2대 설치 <input type="checkbox"/>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유료)	
10.30.(수)~10.31.(목) 17:00~21:00	<input type="checkbox"/> 식음존 운영(실외에서만 가능) <input type="checkbox"/> 위치: 인문광장 잔디밭 앞	

감독 장철수

한국 | 2018 | 123분

등급 15세이상 관람가

출연 김수현, 박기웅 외

제작 엠씨엠씨, 키이스트

CINE TALK

장철수 영화감독

2024.10.31. (목) 17:30

인문대 앞 잔디밭

감독

장철수

2000년 초반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김기덕 감독의 《섬》을 보고 곧바로 귀국, 무작정 김기덕 감독을 찾아가 《해안선》의 연출부를 하며 영화계에 입문했다. 2010년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연출하며 상업영화 감독 데뷔를 하였다.

주연

김수현

출중한 연기력과 스타성의 공존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청춘스타의 새로운 유형이라 평가받았으며, 현재도 다수의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STAFF

각본 김방현, 윤홍기 | 제작 김방현, 김

영민, 홍재중 음악 장영규, 달파란

촬영 최상호 | 편집 김선민



은밀하게 위대하게 Secretly, Greatly

시놉시스

공화국에선 혁명전사,이 곳에선 간첩. 들개로 태어나 괴물로 길러진 내 남파임무는 어이없지만 동네 바보입니다. 북한의 남파특수공작 5446 부대. 20000:1의 경쟁률을 뚫은 최고 엘리트 요원 원류환, 공화국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이자 류환 못지 않은 실력자 리해랑,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남파간첩 리해진. 세 사람은 5446부대의 전설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조국통일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안고 남파된 그들이 맡은 임무는 어처구니 없게도 달동네 바보, 가수지망생, 고등학생이다. 전달되는 명령도 없이 시간은 흘러만 가고 남한 최하층 달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져 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은밀하고 위대한 임무가 내려진다. 전설이 되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영화에 대하여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대한민국의 만화가 Hun(최종훈)이 2010년 7월 5일부터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 만화속세상에 연재했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20000:1의 경쟁률을 뚫고 남파한 북한의 엘리트 간첩 원류환이 동네바보가 되라는 특수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달동네에 체류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감독 주걸륜(周杰倫)

대만 | 2007 | 101분

등급 12세이상 관람가

출연 주걸륜, 계륜미

제작 Avex Asia

CINE TALK

신지혜 전 아나운서

2024.10.31.(목) 17:00

인문대 앞 잔디밭

감독 및 주연

주걸륜 (Bryan Singer)

대만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연예인의 연예인이라 불릴 만큼 중화권 음악시장에서 혁명적, 독창적, 상징적인 가수로 꼽힌다. 그의 대중성과 실험성을 두루 갖춘 음악은 중화권에 충격을 가져다줬다. 데뷔 초부터 어마어마한 팬덤을 구축했고, 아티스트이자 아이돌을 겸한 새로운 시대의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주걸륜의 성공 이후 대만을 중심으로 20대 초반의 남성 싱어송라이터 가수들이 꾸준히 양성됐다.중화권 음악과 서양 R&B 음악을 접목시켜 음악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R&B의 음악적 형태를 완전히 현지화 시켰고 그 당시 발표된 주류 중화권 음악의 형식을 깨고 새로운 노래 스타일을 창조했다. 또 그가 만든 노래들이 줄줄이 대히트치면서 힙합, R&B가 중화권 대중 음악 장르의 주류가 되도록 만들었다. 작곡가로서도 대성공을 거두며 중화권 음악 산업의 작곡가의 지위를 크게 향상 시키기도 했다.

STAFF

각본 주걸륜, 두차랑 | 제작 장조창

음악 Terdsak Japan, 주걸륜

촬영 리광민



말할 수 없는 비밀 不能說的秘密

시놉시스

예술학교로 전학 온 상룡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피아노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인다. 학교를 둘러보던 중, 신비스러운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는 옛 음악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샤오위를 만난다. 그들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둘 사이에는 애절한 마음이 싹튼다. 그러나 상룡이 샤오위를 더 알고 싶어할 때마다 그녀는 비밀이라고 일관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만 짓는다.

그러던 어느 날, 샤오위는 상룡이 같은 반 여학생 칭이와 뽀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곁에서 사라지는데...

영화에 대하여

2007년에 개봉한 판타지 음악 로맨스 영화. 대만 영화의 부흥을 알린 작품들 중 하나로 손꼽히며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였는데 이게 대만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대만 영화계에서 한국의 쉬리 같은 존재감을 지닌 작품인 셈이다.

배우들의 호연과 뛰어난 각본, 완성도, 훌륭한 수준의 사운드트랙이 어우러진 웰메이드 수작영화라는 평이 많다. 평단에서도 평이 그렇게 열광적이진 않았어도 의외로 박평식 등의 간간한 평론가들도 상당한 완성도를 꼽으며 호평을 내렸으며, 대중들에게 호응이 특히 컸던 케이스. 2008년 1월 10일에 국내에 개봉할 당시 전국 15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국내 상영 대만 영화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주걸륜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상영관도 그리 없던 독립영화 수준으로 개봉하던 걸 생각하면 상당한 대박이었다.

이후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로 뽑히는 등 흥행 절대치에 비해 영화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2015년 5월 7일에 리마스터되어 재개봉했는데 전국 9만 9천 명으로 재개봉 영화로서도 상당한 대박을 거뒀었으며 블루레이도 정발되었다. 201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학교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음악 시간에 틀어 주는 단골 영화로 유명했다. 때문에 흥행 기록과 상관없이 높은 인지도를 가진 영화를 꼽을 때는 1순위로 언급되는 영화이다.